



2007년 스웨덴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 머리말

세계경제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과 2005년과 모두 4.0%포인트가 약간 넘는 성장을 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그보다 더 높은 5.1%포인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OECD에 속하지 않는 중국과 인도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OECD회원국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최근의 경기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대금융정책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은행에 대한 높은 신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낮은 기대치, 낮아지는 국채의 이율에 따라 사채의 이율도 더불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은 금리는 기업의 상승하는 이윤 수준과 앞으로 대규모의 투자 필요성과 결합해 수년간 투자 규모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바로 OECD국가의 경기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2006년도의 호황은 2007년과 2008년에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세는 지난 수년에 비해 아마도 약간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제는 경기순환주기가 서서히 성숙기로 진입해 투자는 점차 감소되는 반면 그 대신 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세계 도처에 잔존하는 유휴자원은 점차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자원 이용률의 증가는 당연히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국가가 확대금융정책에 제동을 걸 것임이 분명하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유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하락의 속도는 2006년 가을과 비교하여 약간 낮을 것이다. 예측에 의하면 2008년 말에는 유가가 1배럴당 54달러까지 오를 것이라 한다.¹⁾



세계경제의 가장 커다란 축인 미국경제는 그동안 과열 조짐이 있었는데 최근 몇 차례에 걸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경제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리라 기대된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도의 3.3%포인트에서 2007년도에는 2.5%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이후 성장세가 또다시 높아져 2008년에는 3%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리라 예측된다.²⁾

스웨덴의 주요 교역국이 위치한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2006년도 전반기에는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지만 후반기에 들어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 2006년도 전체 경제성장률은 2.7%포인트에 머무를 것이다. 2007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 예상되는데 독일의 계속되는 긴축금융정책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출시장의 성장을 막으려고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도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2%포인트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고용도 지난 2년과 비슷한 추세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2005년도와 2006년도 경제성장률은 유로 지역 전체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2005년과 2006년 모두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2005년과 2006년 모두 스웨덴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런 면에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경제성장률과 고용 양면에서 유로 지역 전체와 비교할 때 두각을 드러낸다.³⁾

■ 국내경제 동향

스웨덴의 2006년도 경제는 1/4분기 동안 상당히 빠르게 확대되었다. 계속되는 투자의 확대에 의한 세계경제의 성장은 스웨덴의 수출 산업의 확대에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스웨덴의 내수시장의 수요도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투자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볼 때 스웨덴의 경제성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측된다. 수출산업

1) Konjunkturinstitutet(2006) Konjunkturläget december "Sysselsättningen ökar främst inom private tjänstesektorn", p. 28

2) 앞의 책.

3) 앞의 책, pp.31-33.

에 대한 주문량과 각종 경제지표는 수출이 앞으로 한동안 상당히 높은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물량에 있어 최고점은 이미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밝아지는 노동시장과 이에 따른 가계소득의 증가는 가계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높아지는 자원의 활용도와 상승하는 기업 수익 수준 그리고 계속되는 수요 증가는 또한 투자의 빠른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2006년도 4/4분기의 경제성장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지만 2006년도 전체로 볼 때 경제성장률은 4.3%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6년도에 이루어진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는 고용률을 2%만큼 높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실제로 고용의 증가는 2006년도 후반부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완전 실업률이 2/4분기 5.6%에서 4/4분기 5.1%로 낮아진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노동력의 공급 또한 놀랄 만큼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동력 공급량의 증가는 인구학적 그리고 경기적 요소를 합친 것보다 큰데 이것은 스웨덴 노동시장의 내재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감안 해 볼 때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의 예상 고용치 그리고 예상 경제성장률을 약간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⁴⁾

UND1X로 측정된 스웨덴의 2006년도 인플레이션은 1.3%였고 전반적으로 스웨덴은 최근 3년간 상당히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해 왔다. 스웨덴이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로는 지난 2002년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압력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단위노동비용의 낮은 성장세는 무엇보다도 스웨덴 기업의 생산성이 놀랍도록 강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노동비용이 완만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노동시장 자원 활용이 증가하면서 임금도 상승할 것이다. 2006년에는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약 3.2% 증가했는데 2007년에는 3.8% 그리고 2008년에는 4.1%가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노동시장 당사자들이 금년에 있을 단체교섭 시 최근 수년간의 추세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에서 교섭을 타결하리라고 기대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단체교섭 결과 임금이 예상치보다 높게 오른다면 이는 고용증가와 동시에 자연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수반할 것이다. 차후로 경기가 좀 더 성숙된 국면으로 진입하면 기업의 생산성은 낮아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기변동은 경제구조 전반에 잠재하고 있는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4) 앞의 책, p. 51.



이런 상황이 기업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에 반영되는데 2007년도에는 2.4% 그리고 2008년에는 2.1%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규모의 단위노동비용 증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2%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말 기준 UND1X로 측정된 인플레이션 1.5%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단기 노동비용 증가의 효과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또한 최근에 진행된 스웨덴 통화 코로나의 가치 상승 효과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효과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올라가 2008년도 말에는 1.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⁵⁾

■ 최근의 노동시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 경제와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호황 국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수출과 시설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민간소비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용은 잘 알다시피 외수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을 상대로 하는 기업에서 종종 창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발전한 스웨덴경제는 2007년에 들어 국민소득의 증가 속도는 좀 낮아질 것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전년의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높은 경제성장은 노동시장에 있어 뚜렷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고용은 3만 5천 명만큼 늘었으며 2005년도를 통틀어 16세와 65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 평균 74%의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하지만 계속 지적되어 온 것처럼 고용률은 스웨덴 자국 출생자와 스웨덴 외부 출생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약 13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이 활성화된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공공직업알선소에 신고된 구인 광고의 규모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 서비스산업 부문의 노동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데 특히 기업 서비스산업의 노동시장이 가장 활성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경제 컨설팅, 건축가 그리고 IT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고용은 또한 공공부문

5) 앞의 책, p. 89.

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 면에서 균형을 이룬 자치정부와 지방정부의 수가 그동안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고용의 증가는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 1월에 도입된 정부 재원 보조로 마련된 Plus Job제도의 효과이다.⁶⁾

비교적으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문은 건설부문인데 이것은 주로 주택건설사업의 확대에 기인한다. 주택건설사업 부문의 확대는 낮은 주택 대출금리와 계속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 때문에 가능하였다. 산업부문의 고용 인원도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초 동안 약 6만 명이 감소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남성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건설업과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성 노동자들의 고용이 많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약 1/2이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고용은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자치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 부문에 신규채용이 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가지 문제라면 경기가 이렇게 활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신규채용에 대해 약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정규직 고용계약 직원의 경우 더욱 뚜렷하다. 그 이유는 고용을 둘러싼 스웨덴의 복잡한 고용법률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미 고용된 사람들이 초과노동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직장에서 병가를 내는 예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초과노동의 증가와 병가의 감소는 노동시간의 증가가 고용 그 자체의 증가보다 또 빠르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고용의 증가는 자연실업률의 감소에 그다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력 공급의 증가인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학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는 또한 노동시장의 개선을 기다리며 몇 년 동안 추가로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구하는 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2006년 초반에 이런 그룹으로 분류되는 노동자가 약 11만 명 이었는데 이 중 7만 명이 25세 미만이다. 최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자 중 대학 교육을

6) “Plus Job”은 과거 사민당 정부가 실업을 낮추기 위해 제안한 제도로 장기 실업자들에게는 고용기회 확대 및 직장경험 증대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업의 대시민 서비스 질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Plus Job”으로 고용된 자의 임금의 대부분은 공공직업알선소에서 보조하도록 되어있다. (AMS,2006) “Plusjobb” http://www.ams.se/admin/Documents/faktablad/plusjobb_ag.pdf#search=%22plusjobb%22?.



받은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그 주요 이유는 2001년도에 IT산업의 붐이 사라져 버린 결과이다. 이 그룹의 일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간 반면 또 일부는 자기 학력과 능력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으로 진출하였다. 바로 이 그룹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잠재적 요소로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직업전환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로 분류된다.⁷⁾

■ 고용 전망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스웨덴의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이 2007년의 고용 전망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각각의 내용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는 낙관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기업총연맹은 2007년 경기 예측을 하면서 소비와 고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그 상황은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말에 경험한 상황을 상기시킬 정도라고 한다. 스웨덴기업총연맹은 2007년의 이러한 경기 과열 현상은 다음 번에 찾아올 불경기가 더 심각하고 또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사실상 스웨덴의 몇몇 산업은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기업의 노동비용이 다시금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 노동비용이 상당히 상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⁸⁾

앞서 밝혔듯이 스웨덴경제연구소도 경제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특히 연초 몇 달 동안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히 호의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각종 산업의 생산성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제조업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주문과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특히 내구재에 대한 판매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기업들은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실제적으로 2007년에 인력 감축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⁹⁾

건설업의 경우에도 수주량, 건설 총량, 고용 측면에 있어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호황기의 한 가지 문제라면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조사 대상 건설회사의 약 절반이 숙련 노동자

7) Arbetsmarknadsstyrelsen, Arbetsmiljöverket, Försäkringskassan och Socialstyrelsen(2006) Arbetslivsfakta.

8) Svenska Dagbladet(2006. 12. 31) "Lättare att få jobb – men det finns orosmoln".

9) Konjunkturinstitutet(2006) Konjunkturbarometern månad december "Sysselsättningen ökar främst inom private tjänstesektorn"

확보의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 호황에 따라 건설업의 입찰 가격도 계속 상승했는데 하지만 그 상승세는 최근 들어 약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¹⁰⁾

소매업의 경우 2006년 말 몇 개월간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감소 정도는 차량 판매업이 가장 심해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거의 정체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매업 전반의 경기는 좋은 편이며 조사 대상 기업의 약 85%가 판매량에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분야에 있어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내구재 판매회사들이 신규채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2007년도 초반 몇 개월간 경기가 좋고 내구재 판매업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¹¹⁾

운송업, 컴퓨터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등이 속한 민간 서비스업의 경우 2006년 말 몇 개월간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고 그 증가 추세는 2007년도 초반 몇 개월 동안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은 특히 컴퓨터 서비스업, 컨설팅 분야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¹²⁾

■ 맺음말

지난 3년간 세계경기의 호황 덕분에 스웨덴 경기도 계속 호황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수출과 시설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민간소비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증가는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또 궁극적으로 고용 증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006년 말과 2007년 초의 긍정적인 경제성장은 사실상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정부 정책의 효과가 시간을 두고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새롭게 집권한 중도 우파연합 정권의 인기 유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신정부는 이런 유리한 경제·고용 환경하에 올 봄에 시작될 단체교섭에서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KLI**

10) Arbetsmarknadsstyrelsen(2007) Arbetsmarknadsåret 2006–Färre arbetslösa och stark efterfrågan påarbetskraft

11) Konjunkturinstitutet(2006) Konjunkturbarometern månad januari “Sysselsättningen ökar främst inom private tjänstesektorn”

12) Dagens industri (2007. 01. 29) “Byggarbrist i het konjunktur”